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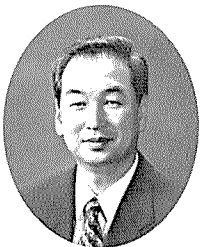


과 ● 학 ● 기 ● 술 ● 부

과학기술부 박호군 장관 및 권오갑 차관 취임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이 이끄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27일 18개 부처의 신임 장관이 임명되었다. 노 대통령은 과학기술부 장관에 박호군(57)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을 임명하였으며, 3월 3일 단행된 차관급 인사에는 권오갑(57) 과학기술부 기획관리실장을 임명하였다.

박호군 장관님 취임사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수고해 오신 전임 채영복 장관님과 직원여러분

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평소 과학기술계의 일선에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일해 왔지만, 막상 우리나라 과학기술 행정의 수장으로서 중책을 맡고 보니 더욱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보니 한결 위안이 됩니다. 제가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을 결집한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창조적인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의 발전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도 결국은 과학기술에 의해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 진흥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정보과학기술보좌관과 과학기술중심

사회 구축을 위한 TASK포스팀을 설치하였으며,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취임사에서 "과학기술을 부단하게 혁신하여 제2의 과학기술입국"을 이루어야 한다고 천명하셨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합하여 열심히 일해 나간다면 머지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과학기술강국에 진입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지만, 오늘 우선 몇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가 극심한 세계 경쟁 속에서 당당한 나라로 서고,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가과학기술혁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 나가면서, 지방의 과학기술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국가연구개발예산 5조원시대에 있지만, 절대규모 측면에서 기술선진국들과 경쟁하기에는 아직 미약한 수준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지만, 이와 함께 투자의 효율성 제

고를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신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세기 미래선도기술로서 앞으로 세계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생명공학, 나노기술, 우주기술 등 미래 신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해 나갈 것입니다.

신 기술간 또한 기존의 주력 산업과의 융합으로 기술중대 효과를 극대화하고 해외연구개발센터를 확보하여 글로벌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과학에 대한 지원 확대와 더불어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현안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신바람 나는 연구분위기를 조성하여 연구생산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을 우대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으로 사기를 진작시켜 가는 한편 청소년들의 이공계 진출 확대와 함께 이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모든 국민들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민생활의 과학화와 합리적인 사고가 함양될 수 있도록 과학문화 확산에도 관심을 갖

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과학기술계 뿐만 아니라 산업계를 포함한 국민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과학기술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과학기술행정과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과학기술자들이 긍지를 갖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함으로써 신뢰받는 과학기술 행정과 공직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과학기술진흥에 강한 의지를 다져온 과학기술계로서는 모처럼 만에 좋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강력한 과학기술진흥 의지가 있고, 그동안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는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해오셨지만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과기부, 군부대 방사선 안전관리업무 공동으로 맡아...

과 학기술부가 그동안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해온 방사선 안전관리업무를 공동으로 맡는다.

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부와 국방부는 5~6년간의 협의 끝에 지난해 말 군내에 방사선 안전관리를 총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과기부가 이를 감독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12월30일 종합정비창을 군내종합 방사선관리 기관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청원 과기부 원자력 국장은 "이번 합의로 군내 방사선 안전관리가 국가 원자력 안전규제의 틀

에 포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과기부는 또 군부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사선 안전교육의 질을 높이고 방사선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 복무중 방사선 안전관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과기부 관계자는 "군 요원의 방사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경우 본인이 전역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방사선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싸이클로트론’ 사업기관 공모

과 학기술부는 핵의학용 첨단 장비인 싸이클로트론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권역별로 관련 연구·생산시설을 설치키로 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사업유치기관을 공모한다.

과기부는 향후 유치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검토, 패널평가, 현장조사를 거쳐 ‘사업유치기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올해부터 2008년까지 최소 5개 권역에 싸이클로트론연구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1단계(2003~2006년)로 2개 권역에 총 1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의료법인, 학교법인, 재단법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자력전문위원실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싸이클로트론은 원자력 및 방사선 의학 연구는 물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용 단반감기(반감기가 2시간 미만) 방사성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첨단 기기다. 현재 해외에서 들여와 수도권에만 집중 설치되어 있으나 지난해 원자력의학원이 13Mev급 싸이클로트론을 국산화, 국내 보급에 나서고 있다. PET는 종래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 비해 암, 뇌질환, 심장질환 등을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